2013 8번
전공A문법 기입형

8. 다음은 반의 관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

○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 성분에서만 대립할 때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 가. 장끼 : [+ (㉠)] [+평] [+새]
 나. 까투리 : [- (㉡)] [+평] [+새]

○ 어떤 단어가 (㉢) 을 / 를 가질 때, 일대다(一對多)의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

벗다	[-착용] [+몸통]	[+착용] [+몸통]	입다
	[-착용] [+머리와 얼굴]	[+착용] [+머리와 얼굴]	쓰다
	[-착용] [+손]	[+착용] [+손]	끼다
	[-착용] [+발]	[+착용] [+발]	신다

* ㉢의 경우 '다의어'를 답안으로 제시하는 해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어 간의 관계' 중 '반의 관계의 개념과 특성을 안다'라는 학습목표로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된 학습자료로 동음이의 관계나 다의어와 같이 하나의 형태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의 복합관계를 이루는 단어를 교수-학습하기 위해 조직된 학습자료가 아니라 의미의 계열관계를 이루는 '단어 간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학습을 하기 위해 설계한 자료라는 점에 유의하며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해야 한다. 따라서 ㉢의 경우 '다양한 의미'라든가 '다의성'을 답안으로 제시할 수는 있어도 '다의어'를 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단어 간의 의미관계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개념과 종류, 특성을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며 유의관계나 반의관계 판별법 등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의미론 영역의 문제가 어떻게 조직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론을 정리하고 학습지도안을 작성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의미론 영역은 정확한 기출문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관용적인 표현과 동음이의어, 다의어 등은 기출문제이지만 심화학습 내용은 여전히 예상문제와 상하관계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 백한빛 선생님과 함께 하는 최종합격 프로젝트,
15년시험대비 연회원모집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빛샘 www.hanwitssam.com

연간회비 **40만원**

수강신청 042/584-5331

1년간 진행되는 모든 정규강의를 월 4만원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강의 교과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문제풀이 7/8월문제 9월예고형 10월최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 • 반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성분분석'이 유용 • 성분분석 : 물질을 원자나 분자로 분해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를 의미 성분의 결합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 ▶ 반의어 : 의미가 서로 대립되는 단어
유형	<p>정도 반의어 =반의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 쌍 ㉠전형적인 보기는 '길다/짧다, 쉽다/어렵다, 덥다/춥다' 등과 같은 형용사 무리 • 특성 ① '단언'과 '부정'에 대한 일방 함의관계가 성립=곧, 한 쪽의 단언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나, 한 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단언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 "X는 길다."는 "X는 짧지 않다."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② 반의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립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X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③ 정도부사로 수식될 수 있으며,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 "X는 {조금/꽤/매우} {길다/짧다} / "X는 Y보다 더 {길다/짧다}" ④ 평가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점. 곧 '길이, 속도, 무게' 등과 같은 가변적인 속성의 정도에 적용되는 기준은 대상이나 장면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 ㉠ "X는 {길다/짧다}."라고 했을 때 X가 '연필'인 경우와 '강'인 경우를 상상해보면 절대적인 길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길이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짧은 강'은 '긴 연필'보다 길다. <p>상호 반의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의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단어 쌍 ㉡전형적인 보기는 '남성/여성, 참/거짓' 등 • 특성 ① 단언과 부정에 대한 상호함의 관계가 성립 ㉠ "갑은 남자이다."는 "갑은 여자가 아니다."를 함의하며, 그 역도 가능하다. ② 반의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모순이 일어난다. ㉠ "?갑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 ③ 정도어의 수식이 불가능하며, 비교표현으로 쓰일 수 없다. ㉠ "?갑은 매우 남자이다." / "?갑은 을보다 더 남자이다." ④ 평가의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점.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절대적 사항이다. ㉠ 남자와 여자, 살다와 죽다. <p>방향 반의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 ㉠ 공간적 관계의 '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 / 인간관계의 '부모/자식, 남편/아내, 스승/제자' / 이동의 '가다/오다, 사다/팔다, 입다/벗다' 등 • 관계의 대립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개념
비대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의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 쌍은 그 의미가 등가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다. <p>정도 반의어 '공간' 어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다/짧다, 높다/낮다, 깊다/얕다, 멀다/가깝다, 넓다/좁다, 굵다/가늘다, 두껍다/얇다, 크다/작다 •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전자가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 후자에 비해, ① 중립적으로 의문문에서 사용되고, ② 사용 빈도가 높으며, ③ 결합관계에서 앞자리에 높이고, ④ 파생에 있어서 더 생산적이다. ⑤ 또한 물리적으로 현저함으로써 언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우월성을 띠게 된 것 <p>방향 반의어 '척탈' 어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다-쓰다-신다-두르다-끼다'에 대한 '벗다', '끼우다-꽃다'에 대한 '빼다', '매다-차다-드러다'에 대한 '풀다' ① '착'에 관한 쪽은 매우 다양하고 분화되어 있는 반면, '탈'에 관한 쪽은 제한 ②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착'에 관한 동작을 발생시키는 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에너지의 양이 많이 요구되므로 더 활성화된 반면, '탈'에 관한 동작을 발생시키는 데나 유지하는 데 에너지의 양이 적게 요구되므로 덜 활성화 된 것 <p>방향 반의어의 '방향' 어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아래-오른쪽'은 긍정적으로, '아래-뒤-왼쪽'은 부정적으로 사용 ① 일차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되며, ② 이차적으로 사회 문화적 경험에 의해서 강화된다.
발생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제로 세상의 많은 사물들이 짝을 이루어 존재하기 때문에 ② 사람들이 흔히 세상만사를 대립되는 짝으로 연결하여 파악하려는 경향에 따라 인간의 생각도 이분법적으로 됨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② 사고를 명확하게 함(사물이나 개념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 ③ 어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도구=어휘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 ④ 언어적 감각과 사용을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반의어의 조건 : ①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가지면서, ② 단지 한 가지의 의미 자질만 달라야(상반, 대립) 한다. → 반의관계는 두 단어의 비교기준이 한 개일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비교기준이 분명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생물><+동물><+인간> <+남성> • 여자 <+생물><+동물><+인간> <-남성> ■ 어떤 단어가 다의어이면 의미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의어 : 뛰다 ↔ 걷다, 내리다, 떨어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적 의미 : 그는 빨리 뛰었다 ↔ 그는 천천히 걸었다. ▷ 주변적 의미 : 물기가 뛰었다 ↔ 물기가 내렸다 / 떨어졌다. ■ 반의어는 반드시 한 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어 : 외래어 / 한자어, 개체 : 군집 / 전체 / 집단

답안 ㉠ 수컷 ㉡ 다의성 (다양한 의미)

■ 교육과정해설서가 곧 문제요 답이다! ■

7차 문법교육과정 [7-국-(5)]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구분	내용	용어 설명
내용선정이유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알고 있는 학습자가 글 속에 쓰인 낱말의 다양한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	
주요학습내용	①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 알기, ②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③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관계 알기, ④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구별하기 등	
지도상 유의점	이 내용은 우리말의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특성을 알고, 이를 국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문제의 정의(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추측한다.), 가설 설정(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가설을 세운다) 가설 검증(가설에 따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고 가설이 타당한지 검증한다.), 결론의 진술 및 적용(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결론을 진술하고 새로운 자료에 결론을 적용하여 일반화시킨다.)'과 같은 탐구 학습을 하도록 한다.	
기본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예를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이 활동은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예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게 함으로써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데 지도의 중점이 있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사전에 등재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동음이의어란, 각 의미들이 서로 관련이 없고 우연히 소리만 일치된 낱말인 데 비하여 다의어는 하나의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적 의미로 확대된 것으로 각 의미들 간에 의미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낱말임을 인식시킨다.	
심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쓴다. 이 활동은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어휘력을 확장시키는 데 지도의 중점이 있다. 예를 들면,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해당하는 여러 쌍의 낱말을 제시한 다음, 각 낱말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쓰게 하고, 낱말들의 의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7차 문법교육과정 (바) 단어의 의미 - 의미의 종류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구분	내용	용어 설명
내용선정이유	① 의미가 언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의 기반에 된다는 점과,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어휘력과 언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	
주요학습내용	언어의 형식과 의미 관계를 알고 이를 통해 의미의 중요성, 의미의 종류,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 의미 관계를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유도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 '국어' 7학년 (7-국어 지식-(5)) 의 심화 ① 의미의 종류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의미, 내포적 의미,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사적 의미 등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기, -개념적 의미를 중심으로 의미망 그려 보기, -실제 언어 자료에서 각 의미의 다양한 예를 수집하기 등 ②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서는 -의미 삼각형을 이용하여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의 형성 원인 알기, -여러 가지 예를 통해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유형화하기, -유형화한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 각각의 특성 구체화하기,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살펴 보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게 된 단어 수집하기 등 ③ 언어 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에서 의미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층위(어휘 층위, 문장 층위, 발화 층위)에서 정확한 의미를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곧 국어 현상을 의미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또, 이 내용을 학습한 결과는 어휘력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의미의 종류는 거의 어휘적 의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단어를 보면 단어들을 무질서한 집합체로서가 아닌 체계 속에서 파악하게 되고, 의미 자질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도상 유의점	따라서, 이 내용의 학습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휘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한편, 이 내용의 학습이 학습자가 직접 언어 자료를 다루면서 의미를 분석해 보는 탐구 과정과 연결된다면 역시 언어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09개정 문법교육과정(심화) ㉞ 단어의 의미 유형과 단어 간 의미 관계,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한다.															
<p>의사소통의 핵심이 되는 '의미'의 문제를 단어(word) 및 어휘(vocabulary)를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의사소통 현상에 대한 언어 의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 설정</p>															
<p>단어와 어휘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의미의 유형, 관계, 양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시설(referential theory), 개념설(conceptual theory), 자극반응설(stimulus-response theory), 용법설(use theory), 의의 관계설(sense relation theory)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의미'의 유형을 나누어 보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p> <p>최근에는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사람들은 단어를 사용할 때 원형적인 보기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원형 이론(prototype)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형'은 해당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인 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과일의 원형은 '사과'이다.</p>	<table border="1"> <tr> <td>1. 개념적 의미</td> <td>논리적, 인지적, 외연적(denotative) 내용으로서 핵심이 되는 의미</td> </tr> <tr> <td>2. 내포적 의미</td> <td>개념적 의미에 덧붙여 어떤 표현이 갖게 되는 전달 가치로서의 의미</td> </tr> <tr> <td>3. 사회적 의미</td> <td>언어 사용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td> </tr> <tr> <td>4. 정서적 의미</td> <td>말할이/글쓴이의 감정과 태도에 따라 전달되는 주관적, 감정적 의미</td> </tr> <tr> <td>5. 반사적 의미</td> <td>같은 표현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리 전달되는 의미</td> </tr> <tr> <td>6. 언어적 의미</td> <td>다른 낱말과의 연합에 의해 연상되는 의미</td> </tr> <tr> <td>7. 주제적 의미</td> <td>어순이나 강세의 변화를 사용하여 화자나 필자가 의도하려는 의미</td> </tr> </table>	1. 개념적 의미	논리적, 인지적, 외연적(denotative) 내용으로서 핵심이 되는 의미	2. 내포적 의미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 어떤 표현이 갖게 되는 전달 가치로서의 의미	3. 사회적 의미	언어 사용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	4. 정서적 의미	말할이/글쓴이의 감정과 태도에 따라 전달되는 주관적, 감정적 의미	5. 반사적 의미	같은 표현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리 전달되는 의미	6. 언어적 의미	다른 낱말과의 연합에 의해 연상되는 의미	7. 주제적 의미	어순이나 강세의 변화를 사용하여 화자나 필자가 의도하려는 의미
1. 개념적 의미	논리적, 인지적, 외연적(denotative) 내용으로서 핵심이 되는 의미														
2. 내포적 의미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 어떤 표현이 갖게 되는 전달 가치로서의 의미														
3. 사회적 의미	언어 사용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														
4. 정서적 의미	말할이/글쓴이의 감정과 태도에 따라 전달되는 주관적, 감정적 의미														
5. 반사적 의미	같은 표현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리 전달되는 의미														
6. 언어적 의미	다른 낱말과의 연합에 의해 연상되는 의미														
7. 주제적 의미	어순이나 강세의 변화를 사용하여 화자나 필자가 의도하려는 의미														
<p>단어의 개념, 유형, 성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수업은 단어의 개념, 유형, 성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협의 및 토의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어 간의 의미 관계에 관한 학습은 어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휘는 기본적으로 단어들의 집합이다. 방언, 은어, 남성어, 여성어, 노인어, 공대어, 관용어, 완곡어, 전문어, 신어, 사교 도구어, 유행어 등을 대상으로 단어들의 집합으로서의 어휘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국어의 어휘에는 한국인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루어줄 수 있다.</p>															
<p>단어 간의 의미 관계에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부분-전체 관계 등과 같이 의미의 계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있다. 동음이의 관계나 다의어는 하나의 형태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복합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의미 변화의 양상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문법 교과서의 부록 중 한 부분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본문에서 다루게 하였다. 대개는 의미 변화의 유형으로 축소, 확대, 이동을 들고 있고, 의미 변화의 원인으로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역사적 원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 변화 양상을 설명할 때에는 다양하고 생생한 국어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p>															
<p>'국어' [8-문법-(4)]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10-문법-(1)]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p>															

1999년 (5)월 기출문제

7. <보기>의 (가)와 (나)에 제시된 단어들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2점)

(가) 아기의 손은 매우 귀엽다.
농촌에서는 지금 손이 모자란다.
나는 지금 그 사람과 손을 떼겠다.
(나) 배(船) / 배(腹) / 배(梨) / 배(倍)

■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중학교 생활국어(7차) 학습활동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세요

왜 7차냐구요?

자금이 어느 시대인데..

수업 시간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4년 기출문제

5-2. (나)에서 '사다', '팔다'가 중심적 의미로 사용된 용례를 찾아 쓰고, '사다', '팔다'가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 특성을 설명하십시오. (3점)

(나) ① 공로를 높이 사다, 병(病)을 사다, 인심을 사다, 학용품을 사다
② 수박을 팔다, 아버지의 이름을 팔다, 양심을 팔다, 한눈을 팔다

<조건> '사다'와 '팔다'의 의미 관계를 고려한 설명을 포함할 것.

• 중심적 의미의 용례 :

• 의미 특성 :

■ 다의어

문제가 진화되는 양상을 추적해 보세요^^

아이디어가 어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

2011기출문제

14. <자료>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에 대해 설명할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자 료>
나누다 [나누어(나뉘), 나누니] ㉠
㉠ 【…을 …으로】
㉠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른다.
¶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
¶ 나는 이 물건들을 불량품과 정품으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
㉢ 【…을 …에/에게】 몫을 분배하다.
¶ 이익금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 【(…과)…을】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
¶ 나는 그녀와 술을 한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
¶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
¶ 고통은 주위 사람과 나누면 작아지고, 즐거움은 나누면 커진다고 한다.

- ① ㉠, ㉡, ㉢과 같은 기호들은 '나누다'가 동음이의어임을 나타낸다.
- ② <자료>에서 보듯이 동사의 뜻은 '종차(種差)+유개념(類概念)'으로 풀어 준다.
- ③ 예를 들어 '빵을 나누기가 어렵다.'에서 '나누기'는 명사이므로 '나누다'와 구별하여 따로 표제어로 등재한다.
- ④ ㉣, ㉤……은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적 의미의 순서로 배열하는데, ㉢-㉣은 '나누다'의 중심적 의미이며 ㉢-㉣, ㉢-㉤은 주변적 의미이다.
- ⑤ 【】 기호는 통사 정보를 나타내는데, '선생님은 키에 따라 청군과 백군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편을 갈랐다.'는 ㉠-㉣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다.

■ 주관식으로 변형된다면 키포인트는 뭘까?

주관식 문제로(기입형이나 서술형 문제로 변형시켜 보세요)

2006년 기출문제

12. "문장 속 단어들의 의미관계를 안다."라는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아래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를 탐구하려고 한다. <보기>의 방식으로 의미 차이를 밝히시오. [2점]

• 날씨 / 연구실이(가) - 덥다
• 난로 / 국이(가) - 뜨겁다

(1) 참가하다, 참석하다, 참여하다

(2) 길, 도로

■ 유의관계

2011기출문제

20. 다음은 반의 관계에 관한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가)~(다)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탐구 자료	탐구 항목	추가 예
탐구 내용	○ 명사 파생이 가능한가? 예 길다/ 짧다, 밝다/ 어둡다 {길이/*짧이}, {밝기/*어둡기}	(가)
	○ 척도를 묻는 의문문에서 사용되는가? 예 길다/ 짧다 (고무줄의 길이를 몰라서 물어볼 때) 고무줄이 얼마나 {기니?/*짧니?}	(나)
	○ 동사로도 사용되는가? 예 길다/ 짧다 [너는 머리가 참 길구나. 너는 머리가 참 빨리 기는구나. 너는 머리가 참 짧구나. 너는 머리가 *짧는구나.]	(다)
탐구 결론	반의 관계에 있는 형용사 쌍 중에서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쪽이 더 활발하게 사용된다.	

- ① 높다/낮다 ② 크다/작다 ③ 길다/얕다
- ④ 넓다/좁다 ⑤ 무겁다/가볍다

■ 반의관계

2014년 기출문제와 비교해 보세요!

2012년기출문제

18. <자료>를 통해 단어의 상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보기>에서 상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바르게 고른 것은?

<자 료>
(가) ㄱ. 비둘기는 새의 일종이다.
 ㄴ. 새는 동물의 일종이다.
 ㄷ. 비둘기는 동물의 일종이다.
(나) ㄱ. 어제 공원에서 영희가 비둘기를 보았으면 어제 영희가 새를 본 것이다.
 ㄴ. "어제 공원에서 영희가 새를 보았으면 어제 영희가 비둘기를 본 것이다."
(다) ㄱ. 어떤 사람이 남성이면 여성이 아니다.
 ㄴ. 어떤 사람이 여성이면 남성이 아니다.

<보 기>
㉠ 하위어가 들리면 반의 관계를 형성한다.
㉡ 하위어는 여러 층위의 상위어를 가질 수 있다.
㉢ 상의어의 의미 영역은 하위어의 의미 영역을 포함한다.
㉣ 상의어를 포함한 문장은 하위어를 포함한 문장을 함의한다.
㉤ 상의어와 하위어는 한 가지 의미 특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미 특성이 같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단어 간의 의미관계 중 마지막으로 상하관계가 출제되었답니다!

출제의 기본 아이디어를 유의관계나 반의관계와 비교해 보면 단어 간의 의미관계에 관한 문항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년기출문제

20. 다음은 단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 자료이다. (가)~(마)에 들어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설명
○ 고맙다-감사하다 ○ 담낭-쓸개 ○ 죽다-돌아가다	(가)
○ 살다-죽다 ○ 넓다-좁다 ○ 가다-오다	(나)
○ 과일-사과, 귤, 포도, 배……	(다)
○ (글을) 쓰다-(모자를) 쓰다-(도구를) 쓰다	(라)
○ 높다 ㉠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거나 사이가 크다. ㉡ 지위나 신분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 꿈이나 이상 따위가 크고 원대하다. :	(마)

- ① (가): 유의 관계는 문체의 차이, 전문어의 사용, 금기 등에 의해 형성된다.
- ② (나): 반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으로 의미 영역을 양분하는 유형, 등급이 있는 유형,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가지는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③ (다): 상하 관계의 단어들을 '의미 성분'으로 표시하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영역을 갖는 단어가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 영역을 갖는 단어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적다.
- ④ (라): 동음이의어는 역사적 언어 변화에 따라 형태가 동일해지면서 발생하므로 서로 의미적 유연관계를 가진다.
- ⑤ (마): 다의어는 한 단어의 중심 의미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발생한다.

■ 단어 간의 의미관계 문제를 종합했지요?

단어 간의 의미관계 중 계열관계에 놓인 사례들의 특성을 타자성의 원리에 기초해 제시하고 있음에 유의하세요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수업생의 입장에서 문법교육론 영역의 내용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양식에 기초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1) 개념
- 2) 종류 : 분류의기준
- 3) 종류에 따른 특성 : 타자성의 원리
- 4) 판별법

* 의미-어휘론과 관련

김광해의 '국어지식의 탐구' 그리고 '국어지식 교육론'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 어본 다음 타 이론서를 읽어준다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 기출문제가 곧 예상문제다!

* 의미론 영역에서 출제된다면 기출문제 수준에서 정리한 후 아직 출제되지 않은 단어의 의미 영역과 단어 간의 관계 중 계열관계, 복합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아이디어는 기출문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백한빛 선생님과 함께 하는
기출문제해설특강

01 주관식기출문제(5만원)

04~08년기출해설

14년도주관식기출해설강의포함

02 객관식기출문제(5만원)

09~13년기출해설

09년도 평가원 모의고사해설 포함

수강신청및상담 한빛샘 042/584-5331

[의미론 보충자료 - 기본]

1. 의미의 유형

1. 의미의 유형

의미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그 중 리치(G.N. Leech, 1981)가 제시한 의미의 일곱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는 언어 전달의 중심적 의미를 말한다. 이것은 언어 표현이 지니고 있는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성질에 바탕을 둔 것이며, 감정적 가치나 문맥적 쓰임이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흔히 '사전적 의미'라고도 한다. 예컨대, '물' '얼음' '수증기'의 기본 성분이 H₂O이듯이, '아버지' '아빠' '부친' '엄친' 등은 [+인간] [+남성] [+결혼] [+양육] 등의 성분을 가진 것으로 개념적 의미가 동일하다.

둘째,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는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 어떤 표현이 지시함으로써 갖게 되는 전달 가치를 말한다. 위에서 본 '아버지' '아빠' '엄친'은 외연적으로는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리키지만, 내포적 의미는 다르다. 곧 '아버지'는 의미상으로 객관적인 반면, '아빠'는 친근한 느낌을 주며, '엄친'은 가부장적 위엄과 권위의 내포적 의미가 연상된다.

셋째,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는 언어 표현에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보기로는 지리적 분포에 따른 지역적 방언이나 성별·세대·직업에 따른 사회계층적 방언에서, 단어의 억양이나 뉘앙스가 다르게 실현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의미를 '문체적 의미'라고도 하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말씨가 변화한다거나 작가에 따라 개성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넷째, '정서적 의미'(affective meaning)는 언어 표현에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가 부가된 의미를 말한다. 정서적 의미에는 청자나 화제에 대한 화자의 호감도나 공손성의 정도가 반영되는데, 우리 속담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 한다!"는 표현은 음성적 변조에 따라 칭찬과 비평의 정서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반영적 의미'(reflected meaning)는 개념적 의미가 동일한 둘 이상의 언어 표현에서, 의미적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순사'와 '경찰', '중앙정보부'와 '국가정보원'에서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부정의 반영적 의미를 띠고 있다.

여섯째, '연어적 의미'(collocative meaning)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배열된 환경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귀여운 아가씨/청년'에서 '귀엽다' 및 '진한 색채/커피/향기/사랑' 등에서 '진하다'의 의미는 주변의 요소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다르다.

일곱째, '주제적 의미'(thematic meaning)는 화자나 필자에 의해 의도된 의미를 말한다. 대체로, 주제적 의미는 문장의 특정 요소에 억양을 부여하거나 어순을 교체함으로써 화자나 필자의 강조점을 드러낸다. 예컨대, '어제 영수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에서 '어제'라는 부사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주제적 의미가 달라진다.

2. 의미의 연구분야

일반적으로 의미 연구의 분야는 어휘 층위, 문장 층위, 발화 층위로 나누게 된다. 그 중 어휘와 문장 층위의 의미는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중립적 의미를 기술하는 반면, 발화 층위의 의미는 화자와 청자가 고려된 실제 상황의 의미를 기술한다. 이 세 가지 층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어휘 층위의 의미 연구분야를 '어휘 의미론'(lexical semantics)이라고 한다. '어휘부'를 이루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와 조사나 어미와 같은 '기능어' 가운데서, 내용어를 '어휘소'(lexeme)라고 한다. 어휘소는 형태나 의미에 있어서 추상적이며 집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컨대, 어휘소 '먹다'는 형태적으로 "동생이 밥을 {먹는다/먹었다/먹겠다}."에서처럼 문법 요소의 결합에 의해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기도 하며, 의미적으로 "{밥/술/담배}를 먹다."에서처럼 <食><飲><喫>의 세 가지 '의의'(sense)에 대응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어휘 층위의 의미 연구는 어휘소를 대상으로 단어의 의미 및 단어 의미의 상호관계를 기술한다.

둘째, 문장 층위의 의미 연구분야를 '문장 의미론'(sentence semantics)이라고 부른다. 문장 의미론은 단어가 결합되어 문장을 이루기까지 그 의미, 통사적 규칙 및 용인성을 규명한다. 문장의 의미와 구성 요소 각각의 의미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성 요소의 의미 총화가 문장의 의미는 아니다. 그 결과 어휘 차원에서 규명할 수 없는 많은 의미 현상들이 문장 층위의 관심사가 된다.

셋째, 발화 층위의 의미 연구분야를 '화용론'(pragmatics)이라고 한다. 이는 발화가 사용자에게 대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화맥, 담화 행위 등이 중심 연구 과제이다. 최근 들어 담화 및 텍스트의 논의도 화용론의 연장선 상에서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2. 의미의 관계

단어의 '의미 관계'는 계열관계와 결합관계로 대별된다. 그 중 계열관계는 단어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로서, "동생이 {강아지/고양이}와 놀고 있다."에서 '강아지/고양이'는 대등한 자격으로 선택될 수 있는 계열관계의 보기이다. 한편, 결합관계는 단어의 횡적인 연관관계로서, "동생이 왼발로 공을 찼다"에서 '공-차다' '발-차다' '왼-발'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는 결합관계의 보기이다. 이 절에서는 상하관계, 유의관계,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한 계열관계와 합성관계, 관용관계, 언어관계를 중심으로 한 결합관계에 대해서 탐구해 보기로 한다.

2.1. 계열관계

2.1.1. 상하관계

'상하관계'(hyponymy)는 단어의 의미적 계층구조에서 한쪽이 의미상 다른쪽을 포섭하거나 다른쪽에 포섭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보다 일반적인 쪽을 '상위어'(superordinate)라고 하고 특수한 쪽을 '하위어'(hyponym)라고 하며, 하위어와 동위관계에 있는 단어를 '공하위어'(co-hyponym)라고 한다.

곧 (1)의 계층구조에서 '동물'은 상위어이며, '새'와 '물고기'는 그 하위어가 된다. 또한 '새'와 '물고기'는 각각 '참새' 및 '까치', '상어' 및 '붕어'의 상위어이므로, 상하관계의 규정은 상대적이다. 한편, '새'와 '물고기'는 '동물'의 공하위어이며, '새'는 '참새'를 비롯한 다수의 공하위어를 지배하는데, '참새 : 까치 : 비둘기' 등의 공하위어는 '비양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1)가. 동물

- 나. 새; 물고기
- 다. 참새 까치 비둘기; 상어 붕어 피라미

상하관계는 의미성분과 함의의 관점에서 규정지을 수 있다. 먼저, (1)의 상하관계를 의미성분으로 나타내 보면 대략 (2)와 같다. (2)에서 '동물'은 '새'나 '물고기'에 비하여, '새'와 '물고기'는 '참새'와 '상어'에 비하여 각각 의미성분이 단순하지만, 공하위어인 '새'와 '물고기'는 의미성분의 수가 동일하다.

(2) 동물: [+생명체] [+움직임]

- 새: [+생명체] [+움직임] [+날개]
- 물고기: [+생명체] [+움직임] [+아가미]
- 참새: [+생명체] [+움직임] [+날개] [+갈색]
- 상어: [+생명체] [+움직임] [+아가미] [+회색]

또한, 상하관계를 '함의'(entailment)의 측면에서 보면, (3-가)와 같이 상위어는 하위어를 함의하지만, (3-나)와 같이 하위어는 상위어를 함의하지 못하므로, 단일 방향의 함의관계가 성립한다.

(3)가. X가 까치이면 X는 새이다.

- 나. 'X가 새이면 X는 까치이다.

상하관계의 뒤틀림은 동일하지 않다. 이 점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4-가)의 엄밀 상하관계와 (4-나)의 유사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이 둘의 차이는 '이행성'(transitivity)을 검토함으로써 드러나는데, (4-가)에서는 항상 이행성이 성립되는 반면, (4-나)에서는 이행성의 성립이 상황의존적이다.

(4)가. 황인중 → 사람, 의사 → 사람

- 나. 개 → 애완동물, 칼 → 무기

다음으로, 상하관계에서 '기본층위'(basic level)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동물-새-참새'나 '생물-식물-나무-소나무-리기다소나무'의 계층구조에서 기본층위는 '새'와 '나무'인데, 일반적으로 기본층위는 계층구조에서 인지적으로 가장 현저한 층위로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물을 지각하고 개념화하는 층위를 말한다. 심리언어학적 실험에 따르면, 기본층위는 상위층위나 하위층위에 비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단순하며, 인지적인 측면에서 일찍 습득되며 지각하기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본층위가 갖는 이러한 우월성은 인지적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곧 인간은 기본층위를 통하여 범주 구성원에 대한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가장 적은 노력으로 획득하게 된다.

2.1.2 유의관계

'유의관계'(synonymy)는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말하며, 그 짝이 되는 말들을 '동의어' 혹은 '유의어'라고 한다. 실제로, 의미가 같고 모든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한 '동의어'는 그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관계

의 대부분은 개념적 의미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유의어'를 가 리키며, 이 경우 유의어는 상호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동일 지시에 대한 유의어는 (1)에서 보듯이 다섯 가지 양상으로 대별된다. 그 중 (1-가)는 표준어와 방언, (1-나)는 고유어와 외래어, (1-다)는 일반어와 특수어, (1-라)는 긍정과 부정, (1-마)는 직접어법과 완곡어법에 따른 유의어의 보기이다.

- (1)가. 국물 : 말국, 옥수수 : 강냉이, 뜰복이 : 무담, 할미꽃 : 오돌토기
- 나. 머리 : 두상, 술 : 약주, 소젖 : 우유 : 밀크,
- 다. 소금 : 염화나트륨, 술 : 곡차, 반찬 : 부식
- 라. 흑인 : 까둥이, 절약가 : 노랭이, 시각장애자 : 봉사
- 마. 죽다 : 돌아가다, 화장실 : 변소, 오줌 : 소변

유의어의 됴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체검증, 대립검증, 배열검증의 세 가지 잣대가 사용된다.

첫째, 문맥 속에서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는 '교체검증'이다. '달리다'와 '뛰다'의 경우, (2-가)에서는 동일한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나)에서는 '말'의 진행과정을 나타낼 경우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상하 운동을 뜻할 경우는 '뛰다'만이 가능하다. 또한 (2-다)와 (2-라)에서는 '달리다'와 '뛰다'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 (2)가. 학교를 향해 {달렸다/뛰었다}.
- 나. 말이 {달린다/뛰다}.
- 다. 기차가 {달린다/뛰다}.
- 라. 물가가 {달린다/뛰다}.

둘째, 대립어를 사용하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밝히는 '대립검증'이다. '맑다-깨끗하다'의 경우, '물, 공기, 시야' 등과의 결합에서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흐리다-더럽다'를 대비시키면 '맑은 물/흐린 물' '깨끗한 물/더러운 물'에서 보듯이 '흐리다'와 '더럽다'의 거리만큼 '맑다'와 '깨끗하다'의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셋째, 유의성의 정도가 모호한 단어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하는 '배열검증'이다. 예컨대, '실개천-개울- 시내-내-하천-강-대하'에서처럼,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의 축으로 배열하게 되면 '개울'과 '시내'의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유의어는 동일한 개념 영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유의어 상호간에 경쟁이 일어난다. 먼저, 유의어 경쟁의 원리를 보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음절의 길이가 짧은 쪽이 유리한데,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에서 '너름지슬아비-農夫' '아비동침누의남진-姑母夫'와 같이 다음절의 고유어가 소멸한 반면, 단음절로 된 '낮(顔), 눈(目), 코(鼻), 귀(耳), 입(口), 손(手), 발(足)'에서는 고유어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은 보기가 된다.

둘째, 유의어의 한쪽이 동음관계를 형성할 경우 경쟁과정에서 불리한데, 중세국어에서 '이자'(利子)와 유의관계에 있던 '길'은 단음절어지만 동음어 '길'(道)에 의한 이중 부담으로 소멸하였다.

셋째, 뿌리가 다른 유의어가 경쟁할 때 우세한 문화권의 단어가 유리한데, '수리-단오' '오락-레크레이션' '자두-오얏' 등과 같이 대외적으로 중국어나 서양의래어, 대내적으로는 서울말이 우세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유의어 경쟁의 결과는 형태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드러낸다.

첫째,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동아리-씨클'과 같이 현실 언어에서 유의 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부유하다-가스멀다'와 같이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쪽은 소멸하는 경우, '틈새'와 같이 유의증복을 이룬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둘째,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의미 영역과 가치 영역이 변화되는 두 부류가 있다. 그 중 의미 영역의 변화로는 '형체(形體)-얼굴(形體>形體·顔>顔)'과 같이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 '종친-겨레(宗親>民族)'와 같이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 '인정(뇌물>따뜻한 마음씨)-뇌물'과 같이 의미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가치 영역의 변화로는 '보람(표적>좋은 결과)-표적(標的)'과 같이 의미가 향상되거나 '겨집(여자>여자의 비칭)-여자'와 같이 의미가 타락한 경우가 있다.

2.1.3. 대립관계

'대립관계'(oppositeness)는 '남자'와 '여자', '사다'와 '팔다', '크다'와 '작다'와 같이 상호 공통된 속성을 많이 갖춘 바탕 위에서 한 가지 속성이 다를 때 성립되는 의미 관계를 말하며,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단어의 짝을 '대립어'라고 한다. 의미적 대립에는 크게 '이원대립'과 '다원대립'으로 구분된다.

먼저, 이원대립에는 반의어, 상보어, 방향대립어가 있다. 그 중 '반의어'는 (1)과 같이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대립어이며, '상보어'는 (2)와 같이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양분하는 대립어이다.

- (1) 길다/짧다, 쉽다/어렵다, 덥다/춥다
- (2) 살다/죽다, 남성/여성, 참/거짓

반의어와 상보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립지역'(M)의 유무인데, (3)에서 보듯이 반의어에는 중립지역이 있는 반면 상보어에는 중립지역이 없다. 그 결과 (4)와 같이 관련된 두 항목을 동시에 부정할 경우, 반의어와 달리 상보어에는 모순이 일어난다.

(3) 반의어와 상보어:

길다	M	짧다	살다	죽다
'반의어'			'상보어'	

- (4)가. 연필이 길지도 짧지도 않다.
- 나. ?그는 죽지도 살지도 않았다.

방향대립어는 (5)와 같이 방향상의 관계적 대립을 나타내는 '역의어'와 (6)과 같이 맞선 방향으로 이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역동어'로 구분된다.

- (5)가. 위/아래, 앞/뒤, 왼쪽/오른쪽
- 나. 부모/자식, 남편/아내, 상관/부하
- 다. 사다/팔다, 주다/받다, 가르치다/배우다
- (6) 가다/오다, 입다/벗다, 나타나다/사라지다

다음으로, 다원대립은 색채어나 요일명과 같이 분류관계에서 동일 층위에 있는 어휘를 가리킨다. 색채어의 경우, '빨강·주황...' 등에서 '빨강'과 '주황'은 동일 분류관계의 자매항이며 상호간에 비양립적이다. 따라서 "저 차는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월·화...'의 요일명이나 동물명, 식물명, 금속명 등이 다원대립어에 속한다. 그 중 요일명은 전체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구성요소를 첨가시킬 수 없으므로 폐쇄적이며, 동·식물명과 금속명은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다.

대립관계는 구조상으로 다양한 비대칭성을 드러내는데, 그 중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표적인 양상을 보기로 한다.

첫째, 공간감각어 '길다/짧다' '높다/낮다' 등에서 '길다'류의 '무표향'(unmarked term)은 '짧다'류의 '유표향'(marked term)에 비해 중립적인 의문문으로 사용되며, 사용 빈도가 높으며, 결합관계에서 앞자리에 놓이며, 파생에 있어서 더 생산적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길다'류의 적극적인 쪽이 '짧다'류의 소극적인 쪽보다 물리적으로 두드러짐으로써 언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우월성을 띠게 된 것이다.

둘째, 착탈어 '입다·쓰다·신다'와 '벗다'의 대립에서 보듯이, '착'(着)에 관한 어휘는 다양하고 분화되어 있는 반면, '탈'(脫)에 관한 어휘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상의 비대칭성은, '착'(着)을 위해서는 그 동작을 발생시키거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양이 많으므로 더 구조화되고 제약을 더 받는 반면, '탈'(脫)의 경우에는 소용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2. 결합관계

2.2.1. 합성관계

합성어의 구성요소 A, B가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관계를 이룰 때, 그 어순은 고정되어 있다. 곧 A와 B가 합성될 때 'AB'형이나 'BA'형이 임의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언중의 인지적 경향성에 따라 'AB'형으로 어순이 고정된다. 아래에서 합성어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시간의 선후관계에 따른 합성관계이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은 물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지한다. 그 결과 (1)과 (2)에서 보듯이 시간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작에서 앞선 시간이나 사건이 앞자리에 놓이게 된다.

- (1) 어제오늘/오늘어제, 작금/금작, 금명간/명금간
- (2) 여닫다/달열다, 개폐/폐개, 송수신/수송신

둘째, 수의 크고 작음에 따른 합성관계이다. 수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은 작은 수에서 큰 수의 차례로 인지하게 된다. 그 결과 (3)의 용례에서 보듯이 작은 수가 앞자리에, 큰 수가 뒷자리에 놓인다.

- (3) 하나둘/둘하나, 예닐곱/일곱여섯, 일이등/이일등, 오륙도/육오도, 천만리/만천리

셋째, 거리 개념의 합성관계이다. 거리 개념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은 가까운 거리를 먼 거리보다 더 잘 인지하고 중시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을 '나먼저 원리'라고 한다. (4)-(6)의 용례는 근칭과 원칭, 시간 및 거리 표현에서 나먼저 원리가 적용된 보기이며, (6-나)의 용례는 나먼저 원리의 적용이 상대적임을 보여 준다.

- (4)가. 이곳저곳/저곳이곳, 여기저기/저기여기, 이리저리/저리이리
나. 그럭저럭/저럭그럭, 그렁쿵저렁쿵/저렁쿵그렁쿵
- (5) 엇그제/그제어제, 오늘내일한다/내일오늘한다
- (6)가. 나남/남나, 자타/타자, 국내외/국외내
나. 연고전/고연전, 남북/북남(고위급 회담)

넷째, 남성과 여성의 합성관계이다. 성별에 관한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은 남존여비의 문화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어순도 이같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관한 어순은 '남성-여성'형과 '여성-남성'형으로 대별되는데, (7)은 남성을 중시하는 언중의 보편적 사고방식에 따라 남성이 앞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며, (8)은 예외적인 보기로서 '총각'보다 '처녀'를 우대함으로써 여성이 앞자리에 놓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9)에서는 비속어, 비천한 신분, 동물의 경우에 여성이 앞자리에 놓임을 보여 준다.

- (7) 부모/모부, 장인장모/장모장인, 신랑신부/신부신랑, 신사숙녀/숙녀신사
- (8) 처녀총각/총각처녀, 처총회(처녀총각의 모임)/총처회
- (9) 연놈/놈년, 비복/복비, 암수/수암, 자웅/웅자

다섯째,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의 합성관계이다. 힘이나 가치의 우열에 따라 대립하고 있는 두 요소 중, 우리 자신은 더 현저하고 중요한 요소에 주목하게 된다. 그 결과 (10)-(12)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요소가 소극적인 요소보다 앞자리에 놓인다.

- (10) 높낮이/낮높이, 장단/단장, 고저/저고, 강약/약강, 대소/소대
- (11) 여야/야여, 주종/종주, 경향/향경
- (12) 금은/은금, 서화/화서, 수저/저수, 책걸상/걸책상, 바지저고리/저고리바지

여섯째, 긍정과 부정의 합성관계이다. 우리 자신은 긍정적인 요소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 결과 긍정과 부정의 합성에는 (13)과 같이 긍정이 앞자리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14)와 같이 부정이 앞자리에 놓이는 용례는 제한되어 있다.

- (13) 잘잘못/잘못잘, 행불행/불행행, 용불용설/불용용설, 가부/부가, 진위/위진, 승패/패승, 미추/추미, 상벌/벌상, 길흉/흉길, 흥망/망흥, 성쇠/쇠성, 희비/비희, 시비/비시, 찬반/반찬, 선악/악선, 우열/열우, 친구/구신
- (14) 화복/복화, 빈부/부빈, 고락/낙고, 손익/익손, 사활/활사, 난이/이난, 애환/환애

2.2.2 관용관계

'관용어(idiom)'는 둘 이상의 어휘소가 구의 형식을 이룰 때 의미가 특수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성 방식이 고정된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관용어는 '전체는 부분의 총화이다'라는 '합성성의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나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된다'라는 '환원주의'(reductionism)로 설명될 수 없다. 이 점을 '미역국 먹다'라는 관용어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영수가 미역국을 먹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1)의 '미역국 먹다'는 '미역으로 끓인 국을 먹다'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실패하다'나 '낙방하다'라는 관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곧 (1)이 관용어인 경우 그 의미는 '미역국'이라는 명사와 '먹다'라는 동사의 단순 결합이 아니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1)의 '미역국 먹다'가 글자 그대로의 용법인 경우에는 (2), (3)과 같이 변형이 자유로우나, 관용어인 경우에는 '미역국'과 '먹다'의 구성 방

식이 고정되어 통사적 변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 (2)가. 영수가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나. 영수가 뜨거운 미역국을 먹었다.
다. 영수가 식당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 (3)가. 영수가 미역죽을 먹었다.
나. 영수가 씨락국을 먹었다.
다. 영수가 미역국을 끓였다.

곧 (2)와 같이 통사적 변형을 통하여 문장 구조를 확장하거나 (3)과 같이 해당 성분을 다른 요소로 대체할 경우, '실패하다'라는 관용어의 의미가 보존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용어는 의미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관습화된 의미 단위로 하겠다.

어떤 용법이 관용어가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곧 구체적인 상황에 쓰이던 표현이 유사한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되면서 그 유래가 잊혀진 채 관용적 구조와 의미를 갖게 된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시치미 떼다'에서 '시치미'는 매의 주인이 자신의 주소를 적어 매의 깃털 속에다 매어 둔 네모난 뿔로서, 다른 사람이 그 시치미를 땀으로써 매를 흠치게 된 것인데,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쓰이다가 관용어가 된 것이다.

따라서, 관용어는 의미의 투명성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미의 불투명형으로서, (4)와 같이 관용적 의미를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둘째, 의미의 반투명형으로서, (5)와 같이 관용적 의미를 어느 정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 의미의 반투명형으로서, (6)과 같이 관용적 의미를 상당 부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이다.

- (4) 용 빼는 재주, 학을 떼다, 북새통을 이루다, 오지랖이 넓다, 썰기를 박다
- (5) 개밥에 도토리, 바가지 굶다, 국수 먹다, 파리 날리다, 바람 맞다, 입이 싸다
- (6) 수박 겉핥기, 무릎 꿇다, 손 들다, 배 아프다, 발 넓다, 틈이 생기다, 하늘이 노랗다

2.2.3. 연어관계

'연어관계'(collocation)는 상호 의존적 기대치를 갖는 의미의 결합관계를 말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에서 '새빨간'과 '거짓말'은 연어관계를 형성한다. 연어관계를 고려할 때 (1)의 빈자리에 기대되는 명사는 '눈, 인형, 옷' 등이다. 한편, '예쁘다'의 자리에 '곱다'나 '아름답다'를 대체하여도 공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쁜 모래 : 고운 모래', '예쁜 이야기 : 아름다운 이야기' 등에서는 의미적 뉘앙스가 다르거나 어색한 표현이 된다.

- (1) 그 소녀는 예쁜 ____을(를) 가졌다.

연어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선택자와 피선택자의 자격으로 비대칭성을 띠게 된다. 즉, '예쁘다'와 연어관계에 놓이는 결합체는 '눈, 인형, 옷'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역으로 '눈, 인형, 옷' 등에서 '예쁘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예쁘다'를 '선택자'라 하고 선택자에 의해서 예상되는 항을 '피선택자'라고 한다. 따라서 선택자는 피선택자를 더 쉽게 연상하고 규정할 수 있지만, 피선택자가 선택자를 연상하고 규정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선택자에 대한 피선택자의 관계는 단일 방향성을 지향하게 되는데, (2-가)에서는 후행 요소에 의해 선행 요소가 기대되는 반면, (2-나)에서는 선행 요소에 의해 후행 요소가 기대된다.

- (2)가. 코를 골다
나. 몸부림을 치다.

단어의 결합관계에 나타나는 제약을 공기제약이라고 하는데, 공기제약에는 언어제약과 선택제약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언어제약'(collocational restriction)이란 연어관계에 의한 관습적 제약을 말한다. (3)과 같이 유의관계의 '두껍다'와 '두텁다'는 개념적 의미는 동일하더라도 언어제약에서 차이를 보인다.

- (3)가. {두꺼운/두터운} 옷
나. {두꺼운/두터운} 우정

한편, 문장의 구성단위간에 나타나는 호응관계를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이라고 한다. 즉, 의미적으로 (4)가 모순되거나 (5)가 변칙적인 것은 선택제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 (4) ?우리 아버지는 여성이다.
- (5) ?영수가 떡을 마신다.

일반적으로, 언어제약을 어긴 경우는 유의어의 대치로 그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반면, 선택제약을 어기면 모순이 되거나 변칙적이므로 제약의 강도가 더 강하다고 하겠다.

☞ 탐구과제

- 다음의 결합관계에서 선택자와 피선택자를 구분해 보자.
‘개가 짖다’ ‘방귀를 뀌다’ ‘물구나무를 서다’ ‘전철을 밟다’
- 우리말의 ‘쓰다, 입다, 신다’라는 동사는 “머리에 모자를 쓰다”, “몸에 옷을 입다”, “발에 신을 신다”로 나타나는데,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각 동사의 공기제약이 사용 대상과 관계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 부위에 관한 부사어와 관계되는가를 밝혀 보자.
(1) 추운 교실에서 아이들이 발에 털모자를 {*쓰고/신고} 있다.
(2) 강도가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신고} 들어 왔다.
(3) 그는 바지를 머리에 {*입었다/썼다}.
(4) 그녀는 안경을 허리에 {*썼다/챘다}.

3. 의미의 확장

언어는 인간의 경험세계를 드러내 주는 창구이다. 실제로 우리의 직·간접적인 경험의 범위는 무한하므로, 새롭고 추상적인 경험세계에 대응하는 명칭을 무한히 만들게 되면 우리의 기억 용량이 이를 감당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 대안으로 기존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러한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해 간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다의어, 은유 및 환유를 중심으로 의미 확장에 대해서 탐구해 보기로 한다.

3.1. 다의어

3.1.1 다의어의 정의

‘다의어’(polysemous word)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곧 다의어란 단어의 원형적이며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그 용법이 확장됨으로써, 원형의미와 확장의미가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를 ‘길’의 다의적 용법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가), (1-나)의 [道路]나 [道程]은 ‘구체적인 통로’를 뜻하는데, 그 원형적 의미는 (1-가)의 [道路]이며, (1-나)의 [道程]은 ‘출발점-과정-목표점’에 이르기 위한 계획된 통로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적, 추상적인 측면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데, (1-다), (1-라)의 [起點]이나 [契機]는 시간적 통로이며, (1-마), (1-바)의 [方道]나 [道理]는 추상적 통로이다.

- 가. ‘길’[道路]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나. ‘길’[道程]을 떠났다.
다. 이 ‘길’[起點]로 그의 집에 가 보아라.
라. 고향 갔던 ‘길’[契機]에 옛 친구를 만났다.
마. 출세의 ‘길’[方道]
바. 스승의 ‘길’[道理]

다의어에서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이 진행될 경우, 이를 하나의 단어인 다의어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단어인 동음어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본질적으로 다의어와 동음어의 경계선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편찬할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사전에는 다의어의 경우 하나의 표제어로, 동음어의 경우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한다. ‘못’에 대한 사전상의 처리방식을 보기로 한다.

- 못¹: 쇠, 대, 나무 따위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든 물건(‘벽에 못을 치다.’)
못²: 굳은살(‘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했다.’)
못³: 넓고 깊게 팬 땅에 늘 물이 괴어 있는 곳(‘못에서 헤엄을 친다.’)

(2)의 ‘못’은 3개의 표제어로 된 동음어이다. 그러나 ‘못¹’과 ‘못²’는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곧 ‘못¹’의 원형적 속성이 바탕이 되어 ‘못²’로 확장된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는 (3)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데, (3)의 ‘못¹’은 하위 표제어로 된 다의어를 이루며, ‘못¹’과 ‘못²’는 동음어가 된다.

- 못¹: ①무엇에 박기 위하여 쇠나 나무로 된 가늘고 끝이 뾰족한 물체
②손바닥에 박힌 굳은살
못²: 연못

이처럼, 다의어와 동음어의 한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다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까닭은 인간의 인지란 본질적으로 지각 내용에 유기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의적 처리방식이 기억의 부담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탐구과제

- ‘밥을 먹다’ ‘한편을 먹다’ ‘귀가 먹다’의 ‘먹다’를 다의어로 볼 것인지 동음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 표제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전마다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자리’의 경우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1)과 같이 별개의 표제어로, 「현대조선말사전」에는 (1)와 같이 하나의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굳다’의 경우 「우리말 새 큰사전」에는 (2)와 같이 형용사와 자동사를 하나의 표제어로, 「국어대사전」에는 (2)와 같이 별개의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다.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1) 자리¹: 물체가 있거나 그것을 둘 수 있는 공간
자리²: 앉거나 눕거나 할 때에 바닥에 깔거나 덮거나 하는 물건
(1) 자리: ①어떤 대상이 차지하고 있거나 차지할 수 있는 곳
②사람이 앉거나 눕거나 하기 위하여 바닥에 까는 물건
(2) 굳다¹: (자)근육이 뻣뻣하여지다.
굳다²: (형) 누르는 힘에 그 본래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견디는 힘이 세다.
(2) 굳다: (형)무르지 않고 단단하다.
(자)뻣뻣하거나 딱딱하여지다

3.1.2. 다의어의 생성

다의어는 영상도식, 은유, 환유, 문법화의 네 가지 기제에 의해서 생성된다. 먼저, ‘영상 도식’(image schemas)에 의한 의미 확장을 보기로 한다. (1)의 ‘흘러가다’는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는데, 경로 도식의 원형적 용법은 (1-가)와 같이 대상이 ‘액체’일 경우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영상을 바탕으로, ‘시간’이나 ‘마음’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도 동일한 이동의 영상 도식이 적용되어 다의어가 형성된다.

- 가. 물이 흘러간다.
나. 시간이 흘러간다.
다. 마음이 흘러간다.

다음으로,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에 의한 의미확장을 보기로 한다. ‘머리’의 경우, 그 원형의미는 ‘신체 부위로서 골이 들어 있는 목 위의 부분’인데, 이를 바탕으로 (2)에서는 유사성에 의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나며, (3)에서는 인접성에 의한 환유적 확장이 일어난다.

- ‘머리’의 은유적 확장
가. 물리적 위치(사물의 윗쪽): ‘책상머리’ ‘산머리’ ‘못대가리’
나. 공간적 위치(입구): ‘들머리’
다. 사회적 위치(책임자): ‘우두머리’ ‘두목’
라. 순서적 위치(시초): ‘머리말’ ‘말머리’
- ‘머리’의 환유적 확장
가. 부분-전체(사람): 머리를 헤아리다
나. 장소-부속물(머리털): 머리가 세다
다. 수단-기능(지능): 머리가 영리하다
라. 전체-부분(두뇌): 머리에 새기다

끝으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에 의해서 의미가 확장되는데, 이는 내용어의 기능어화 또는 기능어의 더 추상적인 기능어화 현상을 말한다. (4)의 ‘법’은 내용어에서 기능어로의 문법화 과정을 보여 준다.

- 가. ‘법’을 제정하다. [법률]
나. 음식 만드는 ‘법’ [방법].
다. 바다의 아침은 일찍 오는 ‘법’이다. [이치]
라. 그는 좀체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 [태도나 버릇]
마. 그런 일이 있을 ‘법’하다. [가능성]